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매거진

FoMo

Forced Mobilization

2021년 11월호

Vol.22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National Memorial Museum of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Occupation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2021년 11월호 VOL. 22

FoMo
Forced Mobilization

이슈
03 역사를 배울 수 없는 일본 교과서
04 법원, '강제동원' 미쓰비시에 자산 매각 명령
06 신임 일본 총리, 강제동원 기존 주장 되풀이

재단 행사
08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거행

역사관 소식
10 '나는 강제징용자입니다.' 제4회 불독국제영화제 우수상

소장유물 소개
12 코베이 옥션 경매 구입 유물 소개

역사관 전시
14 눈여겨볼 역사관 이달의 전시

강제동원 흔적 탐방기
16 코시국, 가장 그리운 그곳 공항

유관기관 소개
18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 역사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을 가다

역사관 방문기
20 거짓말처럼 사라진 청춘들을 기억하며

재단 활동
21 노경달 재단 신임 사무처장 소개 " 피해·희생자의 피땀 어린 눈물 헤아리며 재단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

역사관 사용설명서
22 역사관 인문학 특강 역사관대학 'FoMo 학당'
23 역사관 캐릭터 '포모'와 함께 강제동원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포모가 달라졌습니다 강제동원을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포모가 새로워졌습니다. 보다 쉽고 친근한, 하지만 가볍지 않은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워진 포모는 격월간으로 발행됩니다.

포모는 소식지와 이름이 같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캐릭터로 강제동원의 아픔을 극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입니다.

일러두기 FOMO는 일제의 강제동원을 뜻하는 Forced Mobilization의 약칭입니다. 일제강제동원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자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통제를 말합니다. 강제동원은 잊어서도, 잊혀져서도 안될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입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매거진
발행일 2021년 11월 15일 통권 제22호 **발행인** 김용덕 | **편집인** 박철규 | **편집위원** 김영진, 박수란, 박태성, 안덕자, 정두나, 조미숙 | **기획·편집** 김민균 | **디자인** ㈜광장A&C 051-583-8722 | **주소**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 (대연동 산 204-1) **T** 051-629-8600 **F** 051-629-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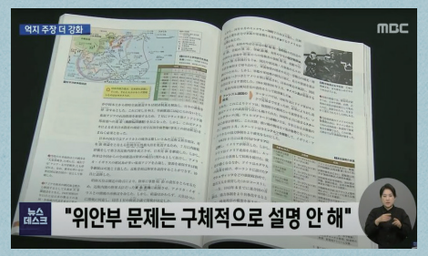
역사를 배울 수 없는 일본 교과서

종군위안부·강제연행 표현 삭제
교묘한 말장난으로 군국주의 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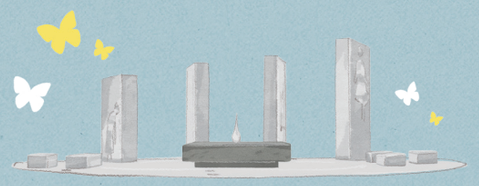




출처 : 뉴스1



출처 : MBC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9월 8일 야마카와출판 등 교과서 업체 5곳이 제출한 종군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 변경하는 수정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 중·고교 지리와 역사 등 29개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위안부'로 대체된다. 강제동원의 의미로 사용되던 '강제연행'도 '강제적인 동원'이나 '징용' 등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중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단어가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에 강제연행의 뜻이 담겨있다며 삭제를 요구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 극우세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과거사 왜곡과 일제 군국주의의 미화로 밖에 볼 수 없다. '종군위안부'는 1993년 고노담화에서도 사용된 용어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뜻을 담아 처음으로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 이에따라 일본의 어린 세대는 왜곡된 역사를 배워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 정부는 9월 10일 종군위안부와 강제연행 표현삭제와 수정을 두고 일본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를 부정하고 교묘한 말장난으로 회피하는 것은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글 | **편집부**

법원, '강제동원' 미쓰비시에 자산 매각 명령

"강제동원 피해배상 외면해온 미쓰비시는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



우리나라 법원이 지난 9월 28일 처음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법은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쓰비시는 군수물품을 제조하던 전범기업으로, 조선인 10만여 명을 강제노역시킨 주범이다. 미쓰비시는 미·중피해자에게 사과하였지만,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여전히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서 국내 법원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으로, 1인당 2억 970만 원 가량의 배상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되어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 배상을 외면해 왔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였으나, 미쓰비시는 이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미쓰비시는 또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압류가 정당하다고 미쓰비시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미쓰비시는 이번 명령에도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해결됐으며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이에 반한다는 것이다.





우리 법원이 9월 28일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에 대해 국내 자산 매격 명령을 내렸다. 사진 오른쪽은 미쓰비시중공업 명판.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소송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미쓰비시 자산의 현금화는 한일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외부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공사를 불러 공식 항의 하기도 했다.

얼마전 치뤄진 국정감사에서도 미쓰비시와 관련된 질의와 발언들이 이어졌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대위변제 방안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소송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불 주체가 되는 것으로 기존 해결방안으로 부상했던 한일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입법절차, 소송 당사자의 합의 없이 한국 정부가 주도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수년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99개 전범기업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쓰비시, 미쓰이, 쓰미토모 등 119개사에 투자했다. 그중 올 2월 기준 미쓰비시에 1063억 원, 미쓰이에 3462억 원, 스미토모에 1603억 원이 투자하여 총 6129억 원을 투자했다. 현재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전범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투자하여 배를 불려주고 있는 꼴이라 지적했다.

글 | **편집부**

신임 일본 총리, 강제동원 기존 주장 되풀이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10월 4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내각에서 4년 7개월간 외상을 맡으며 지난 2015년 12일 한일 위안부합의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한일관계에서 기존의 아베-스가 내각의 강경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다. 13일 일본 참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한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 한국 측이 일본 측에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조기에 내놓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참의원 본회의에서 발언했다고 한다. 이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건협정으로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15일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한일 양국 정상의 전화 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문제에 대해 “한국 쪽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전화 회담 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로 인해 일한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며 “국제적인 약속, 국가와 국가 사이 약속 또는 조약, 국제법은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다”라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협의와 소통을 가속화하자”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이 납득하면서도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과 통화 후 이틀 뒤인 17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전화 회담 후 겨우 이틀만에 태평양전쟁의 전범들을 합사한 야스쿠니의 공물 봉납은 향후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강경노선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과 참배가 아닌 공물 봉납은 한·중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10월 31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단독 과반수 달성에 성공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수를 더하면 전체 465석 중 293석을 차지한 것으로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절대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망언을 일삼고 있는 일본의 강성우익 ‘일본유신회’가 제3당으로 급부상했다. ‘더 보수적으로 개혁하자’는 정치 슬로건을 내세운 일본유신회는 법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21석 이상인 총 41석을 차지해 앞으로 의회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일본유신회는 2012년 당 로고의 일본 지도에 독도와 중국 댜오위다오까지 포함해 국제적인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부대표인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세운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도시 간 자매결연을 끊는 등 집권정당인 자민당보다 더 강한 극우성향을 띠고 있어 향후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글 | **편집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거행

희생자의 넋 기리고 평안과 안식 기원



일제의 가혹한 강제동원에 희생된 분들의 넋을 달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전국합동위령제가 10월 28일 오후 2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공원에서 50여 명의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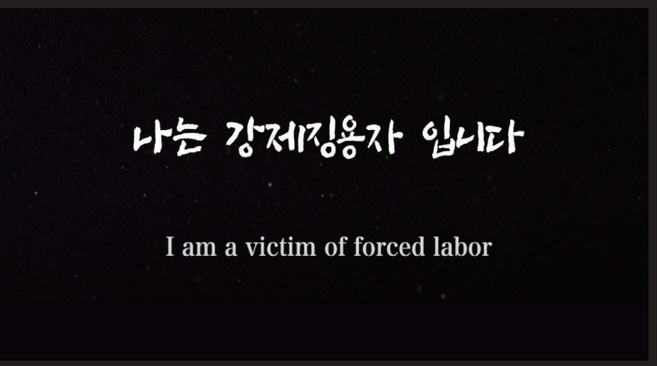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추모공원에서 전국합동위령제를 엄수하고 있다. 올해는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희생자를 추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글 | 역사관 **장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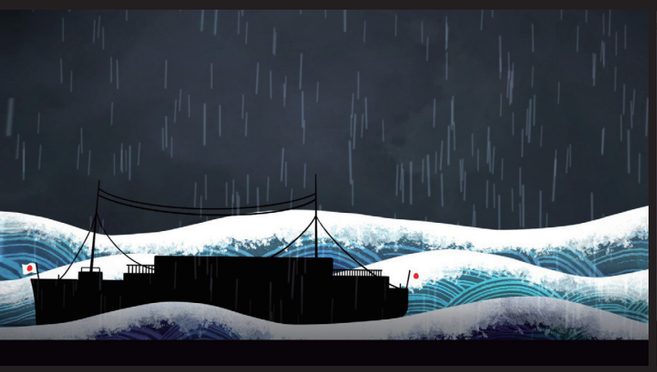














강제동원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

‘나는 강제징용자입니다’ 제4회 불독국제영화제 우수상

- 제 목 : 나는 강제징용자입니다.
- 길 이 : 13분
- 제 작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 감 독 : 김영조 (영화감독, 동의대학교 교수)
- 애니메이션 시청 바로가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나는 강제징용자입니다’가 제4회 불독국제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역사관에서 수집한 일제 강제동원 생존자의 증언을 내용으로 하며, 등장인물을 그림자 인형으로 묘사해 관객이 인물보다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기획했다. 불독국제영화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소재로 한 독립영화제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고 소방청이 후원한다. 해당 영화제만 아니라 역사관은 다양한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알리는데 힘쓸 계획이다.

글 | 역사관 **장민성**

경매의 재발견

역사관에서는 매년 공개 구입과 기증을 통해 전시 · 교육 ·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 지난 호의 기증 자료 소개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경매 구입 유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코베이 옥션 9월 경매에서 낙찰받은 최신 유물을 구경해 보자.

경매 참가부터 낙찰까지

유물 구입을 준비하던 중 코베이 옥션 '삶의 흔적' 경매 도록을 보고 경매 구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 경매 일정이 미뤄져 운좋게 경매장 전시 관람도 할 수 있었다. 코베이 측 담당자와 면담해보니, 경매가 공개 구입보다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어 올해부터는 경매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경매 구입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경매 물품 도록을 검토해서 구입 대상 자료를 선정한 후, 유물수집자체평가회를 통해 1차 평가를 한다. 경매 전시장에서 실물을 보며 분야별 유물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응찰 상한액이 책정되면, 구입 대상 유물을 최종 선정한다. 경매 당일에 무사히 낙찰받은 유물들은 화상 공개 후, 경매 업체로부터 인수받아 수장고로 보낸다.

공개 구입과 비교하면

공개 구입은 일정 기간 매도신청을 접수받아서 1차 평가 대상 자료를 선정해야 하는데, 경매는 어느 정도 해제가 되어 있는 도록을 참고하여, 의견수렴만 하면 되는 편의성이 있다. 그리고 분야별 유물감정평가를 위해 경매 전시장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공개 구입 시의 실물 접수, 출납, 반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 무엇보다 공개 구입 시 거쳐야 하는 매도 협상이나 매도자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소요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

필요한 것은 오직 순발력

코로나로 인해 현장 경매가 불가한 상황이라고 해서 조금 아쉬웠지만, 온라인 경매도 막상 해보니 나름 신선한 경험이었다. 경매 마감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긴장되고, 실수해서 낙찰을 못 받을까봐 불안감이 커졌다. 경매가 진행된 후에는 10분마다 순차적으로 입찰이 마감되기 때문에, 경매 순번과 잔여 시간을 확인하면서, 입찰 종료시간까지 계속 새로 고침을 클릭해야 했다.

초반에는 단독 입찰이라 안심하고 있다가 경매 마감 직전에 고액으로 입찰한 사람 때문에 급격하게 의욕을 상실했다. 응찰 상한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라 한 번 더 시도해 볼 여지도 없었다. 종료 1분 전에 갑자기 새로운 입찰이 들어와 최고 입찰자에서 차 순위가 되어있는 걸 보고 식겁한 순간도 있었다. 그렇게 낙찰에 성공한 유물이 7건. 경매 구입은 준비부터 종료까지 시간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코베이 옥션 경매 구입 유물 소개



[전매보국강조주간 專賣報國强調週間] 전단지

일제강점기 전주지방전매연맹(全州地方專賣聯盟)에서 전매보국강조주간(專賣報國强調週間)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한 홍보물로, 강조 주간 동안 지켜야 할 12가지 주의 사항을 담고 있다.



[병기헌납취의서 兵器獻納趣意書] 전단지

1939년 전남군사후원연맹과 국민정신총동원전남도연맹이 발행한 독려서이다. 황군의 병기 헌납을 위해 돈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신흥의 조선 新興の朝鮮] [재판본]

조선총독부 시정 실적을 선전하기 위해 발행한 홍보용 책자로, 전통적인 조선 사회·경제상과 식민 통치 이후 근대화된 조선을 비교·서술하였다.



[반도의 빛 半島の光] 鮮文版

1943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월간으로 펴낸 기관지 겸 종합잡지이다. 대일 협력적인 시국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된 전형적인 친일 잡지이다.



[매신 사진구보 每新 寫眞旬報] 1942년[第305號]

매일신보사에서 아시아 태평양전쟁 1주년 기념호로 발행한 잡지이다. 전쟁 기록을 담은 이 화보 잡지는 전쟁 홍보와 국민 규율을 위해 발행되었다.

글 | 역사관 **반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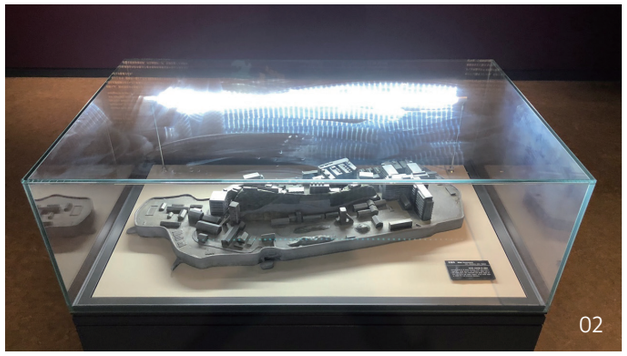
군함도 모형전시 - 짙은 무채색과 굵은 선으로 표현한 군함도의 슬픔

역사관은 4층 상설전시실 내에 군함도 모형을 새로 설치하였다. 부산 비엔날레 참여작가이자 Korean eye 2020* 에 참여한 박상호 작가가 제작했다. 군함도가 가진 강제동원의 깊은 아픔과 슬픔을 짙은 무채색과 굵은 선으로 표현하여 관람객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다.

* 영국 PCA재단과 런던의 사치 갤러리가 협력해 세계가 주목하는 신진 아티스트 지원·육성프로그램

'이달의 독립운동가' 展 강제동원까지 당해야만 했던 나라를 빼앗긴 설움과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역사관은 독립기념관과의 협업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 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나라 잃은 설움에 원치않던 강제동원까지 당해야 했던 그 시절,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힘썼던 독립기념가들의 헌신을 되새겨 보는 전시다. 독립기념관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역사관 6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한다. 매달 새로이 선정되는 독립운동가들의 숨은 이야기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만날 수 있다.









01 02 군함도 모형 **03 04** 이달의 독립운동가 **05** 일제침탈의 기억

일제 침탈의 기억, 두 번째 이야기 - 조선인의 삶 展

역사관은 지난 8월 13일부터 동아대학교 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와 공동으로 '일제 침탈의 기억, 사진그림엽서(신동규 컬렉션)展'을 개최 중이다. 동아대학교 국제대학 일본학과 신동규 교수(역사인문이미지연구소장)가 소장한 5만여 장의 사진그림엽서 중에서 엄선한 30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9월 21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역사관 6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2부 전시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삶을 다룬 12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지난 1부 전시에서는 일제가 한국 병합을 선전한 엽서들을 통해 조선을 향한 일본제국주의의 멸시적이고 침탈적인 시선을 느껴보았다.

이번 엽서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일반 조선 민중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이다. 한편으로는 일본인의 시각에서 강점기 조선인의 모습을 담은 엽서라는 점에서 그들이 조선을, 또 조선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려 했는지도 알 수 있다.

글·사진 | **편집부**

코시국, 가장 그리운 그곳 공항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일상을 바꿔놓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리운 것은 아마도 자유로운 여행일 듯하다. 일부 국가는 트래블 버블*을 통해 해외여행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 들면서 괌, 사이판, 하와이 등 일부 노선의 운항이 재개되어 잠잠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외여행 대신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도는 추석연휴에 24만 880명, 한글날 연휴 16만 5000명이 방문했다고 한다. 나 역시도 올 여름휴가는 제주도로 다녀왔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설레임이 좋았는지 딸아이는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비행기 이야기를 한다. 여행의 출발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마도 설레어 할 그곳, 공항. 국내 공항 중에서도 역사관이 위치한 부산 인근의 김해국제공항은 다른 공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공항 내에 군수송기가 있는가 하면 사진촬영은 물론 항공기 운항시간도 제한된다. 그것은 김해국제공항이 일부 군사공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국제공항이 군사공항으로 이용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다.

*감염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국가에 한해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제도



역사관소장, 자살특공대 사진

인재웅이 자살특공대로 동원되었을 당시 촬영한 사진이다. 인재웅은 제4항공군사령부 소속으로 강제동원되어 1944년 11월 29일 필리핀 레이테만에서 사망했다.(인건명 기증)

해방이후 일본군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의 일본 해군 비행장은 김해 낙동강 하구, 포항 영일만에 위치했다. 김해에 있던 비행장은 '부산항공기지'로 명명했고, 125만 평 규모에 길이 1500m, 폭 50m의 활주로를 갖췄으며 20여 기의 격납고가 있었다고 한다.

부산항공기지에 처음 배치된 부대는 1945년 2월 오무라항공대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분견대가 부산으로 옮겨오면서 독립해 만들어진 부대이다. 일본 규슈에 있던 오무라항공대는 해군 항공기 조종사를 교육, 훈련하는 부대였다. 오무라항공대는 전황이 악화되면서 1944년 10월부터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적함으로 돌진하는 자살특공대를 조직해 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전쟁 시기 미군이 군사비행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미군의 공군기지 역할을 하였고, 1976년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부산비행장이 이전하면서 지금의 김해국제공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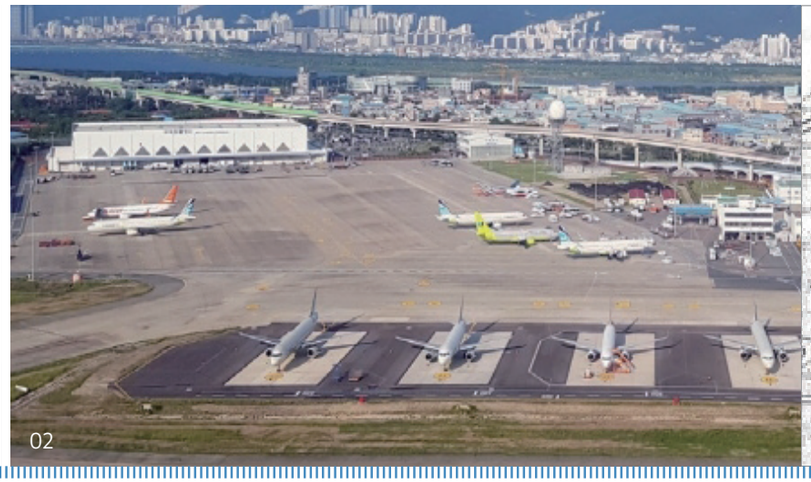
마냥 행복한 여행을 떠나던 김해국제공항이 그 옛날 자살 폭탄을 싣고 남의 나라 남의 전쟁터에서 장렬히 전사하러 떠나던 곳이라니 마음 한구석이 시려온다.

글·사진 | 역사관 **김민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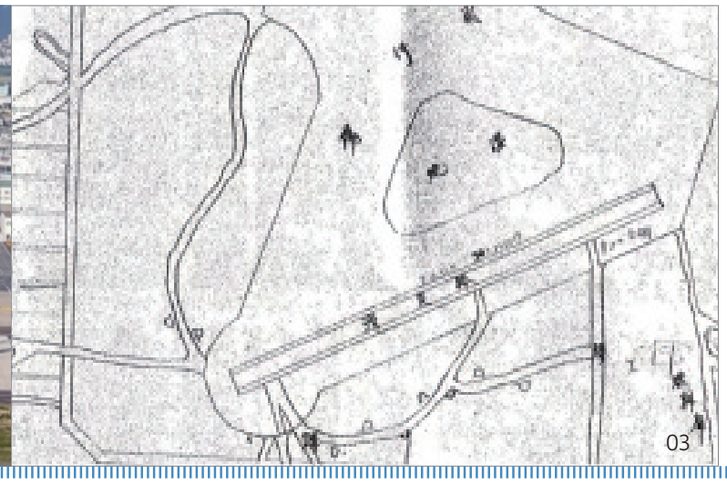
01 비행기에서 보는 창밖은 언제나 설레임이 가득하다 **02** 김해국제공항(출처-연합뉴스) **03** 일제의 '부산항공기지' 지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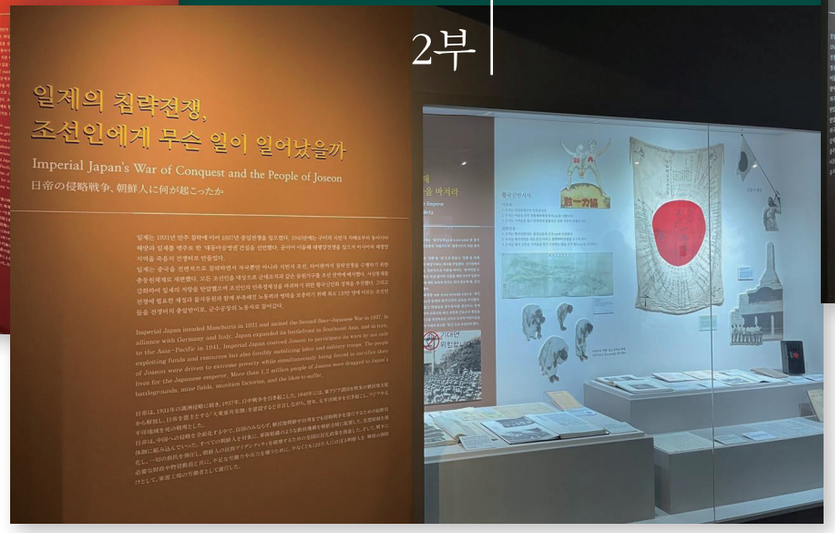


02



03









1부 ___ 일제는 왜 한반도를 침략했을까
2부 ___ 일제의 침략전쟁,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3부 ___ 한 시대의 다른 삶 - 친일과 항일
4부 ___ 과거를 이겨내는 힘,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진: 박물관 입구)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 역사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을 가다

늦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9월, 서울 용산구에 자리한 식민지역사박물관을 다녀왔다. 재단과 공동주최로 강제동원 특별전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를 열고 있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은 일본제국주의 침탈의 역사와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 빛나는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시하는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 역사박물관이다. 해외 동포를 포함한 수많은 시민들의 성금과 기증자료에 힘입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역사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상설전시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쟁탈 경쟁을 통해 일제의 한반도 침략 야욕을 설명하며 개괄한다. 1부에서는 메이지유신과 청일전쟁을 비롯하여 일제가 오키나와, 조선, 대만 등 주변 국가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는 과정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을사5적, 정미7적, 경술국적을 비롯하여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친일파와 그들에 대한 항쟁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2부는 수탈과 일제강제동원의 아픔을 실물자료를 기반으로 다루고 있다. 3부는 친일과 항일, 한쪽 벽은 대표적인 친일패밀리, 다른 쪽 벽은 3대에 걸쳐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항일 명가를 소개한다. 4부는 공감과 연대, 그리고 투쟁의 사건들을 통해 동학농민전쟁의 '횃불'에서 시민혁명의 '촛불'로 이어지는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 7일까지 개최된 특별전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기반하여 일제강제동원과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에 대한 전시로 마련되었다. '부정적 세계유산과 미래가치', '일본의 산업유산, 왜곡된 현장 사라진 역사' 등의 소제목에서 전시주제를 엿볼 수 있었다.

글·사진 | 역사관 **안송이**

전시 정보

- 전시제목 : 강제동원 특별전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강제동원의 역사를 전시하라!>**
- 공동주최 : 민족문제연구소, 식민지역사박물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전시기간 : 2021년 7월 16일(금) ~ 11월 7일(일)
- 전시장소 : 식민지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T. 02-2139-0427

거짓말처럼 사라진 청춘들을 기억하며



그간 일제가 자행한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일부 기록된 사례들 혹은 종합 박물관의 한 파트로 짧게 접해 왔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람을 통해 느낀 것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 처음입니다. 보고 느낀 것들을 소중히 기억하고자 스마트폰에 메모하면서 관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메모장을 열어 보았는데, 거짓말처럼 그날의 기록만 사라지고 없어 막막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기억과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청춘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전시된 사진 중에 강제로 동원되기 전 친구들과 미소를 짓거나 동원된 후에 고된 일을 하는 중에도 포즈를 한껏 취한 것이 있습니다. 각종 고역에도 환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힘은 청춘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젊음이란 패기와 열정을 소모하여 타국에서 노동의 대가를 받지도 못한 채 인권탄압을 당하고, 영양불균형의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격언과 다르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생애에 단 한번 태어나 빛을 발해야 할 시기에 그분들의 청춘은 아스라이 사라져갔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여서 더욱 공감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추모공간에서 그 이름들을 짧은 시간동안 읽어 내려갔고, 가슴은 마치 서리가 낀 듯 시렸습니다.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눈을 감아야 했을 슬픔과 한이 전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노래 '이름에게'가 떠올랐습니다. 가사 중에 '수없이 잃었던 춥고 모진 날 사이로 조용히 네 이름을 알아. 멈추지 않을게. 몇 번이라도 외칠게'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잠시나마 그분들에게 늦었지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 지금 이순간도 조용히 그 이름들을 찾고 외쳐주시는 역사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추모의 계단을 내려갈 때쯤 눈물이 순간 핑 돌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사회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제강제동원과 관련하여 해결의 매듭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으로 이에 관심을 가지는 역사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번 방문할 때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람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강제동원된 분들의 청춘은 귀한 시간을 보상받지 못한 채 거짓말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분들의 청춘은 우리 곁에 반짝거리는 별처럼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글· **김○윤**(부산 해운대구)

" 피해·희생자의 피땀어린 눈물 헤아리며 재단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 노경달 신임 사무처장

Q.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내무부를 거쳐 행정안전부까지 40여 년을 공직에 봉사했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긍정의 힘으로 지방분권 촉진과 세종시 이전을 진두지휘하면서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앞장서 온 점을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분주한 공직 생활 속에서도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 부족한 부문을 채워나갔습니다. 주경야독의 시간을 통해 '공무원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만학도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고 그들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소박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더불어 살며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통합을 구현하는데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Q. 재단에 오신 소감

A. 재단은 문화·학술·조사·연구, 복지 지원, 추념 사업과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으로 국민 통합과 평화·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재단에서 일할 수 있음에 기쁨과 영광이라는 생각보다 막중한 책임감에 무거움이 앞섭니다.

우리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겠습니다. 당면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매듭짓겠다는 각오로 존경하는 이사장님,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

A. 재단 부임을 전후해 영화 '군함도'를 세 번 봤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해보자는 나름의 작은 몸부림이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보이는 기록'과 '보이지 않는 기억'을 망라한 조사·연구에 매진하여 세대에 걸쳐 소통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 재단법의 제정도 시급합니다. 청구권 수혜기업들의 출연이나 재단 사업의 미래지향적인 역량을 함양하고 유족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임직원들과 함께 현안들을 해결해 생동감 있는 재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유족, 관련 기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습니다.

강제동원 세대들의 노령화로 얼마 남지 않은 피해·생존자들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는 현실 속에 남몰래 눈물짓는 유족들의 심정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피해·희생자들의 땀과 기억, 피땀 어린 눈물도 헤아려가면서 재단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직원들과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재단 **이기병**

역사관 인문학 특강

제1강	자산과 다산, 유배지의 형제들	김문기	7. 10.(토)	14:00~16:00	50명
제2강	3·1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	강대민	8. 14.(토)	14:00~16:00	50명
제3강	일본인 공동묘지와 한국전쟁 피란민	차철욱	9. 11.(토)	14:00~16:00	50명
제4강	일제의 침략전쟁과 제노사이드	홍순권	10. 9.(토)	14:00~16:00	50명
제5강	부산의 길과 지역정신	박창희	11. 13.(토)	14:00~16:00	50명

- **대상** : 일반 시민 • **신청 기간** : 정원 마감 시까지 • **장소** : 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
- **참여 방법** : 역사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한 사전 접수 (051-629-8633, 8630)

역사관대학 'FoMo 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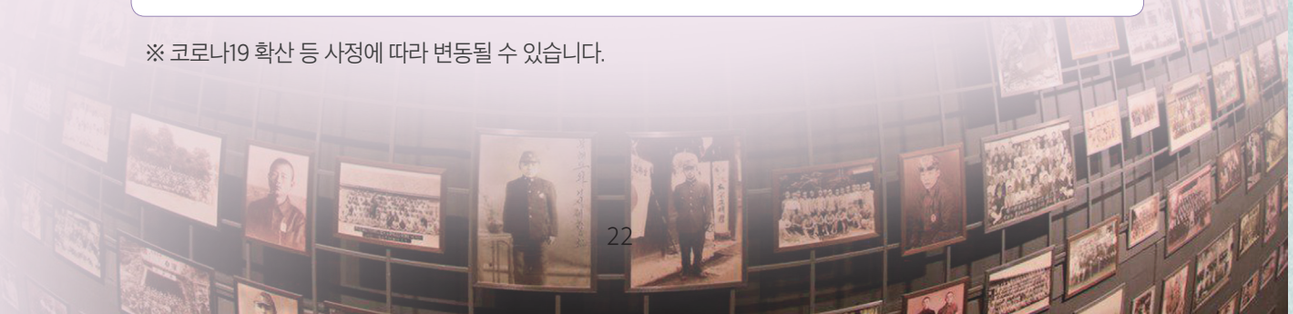
부산의 일제강점기

2021학년도 2학기

강연자	소속	주제	강연일		정원
이가연	부경대 사학과	일제시기 부산 이주 일본인 상공업자	10. 6.(수)	19:00~20:30	50명
김민화	부산대 사학과	근대도시 부산의 경제인 네트워크	10. 13.(수)	19:00~20:30	50명
고나은	부산대 사학과	동원된 개발: 개발재난과 구제동원	10. 20.(수)	19:00~20:30	50명
전성현	동아대 석당학술원	근대적 일상과 부산의 도시문화	10. 27.(수)	19:00~20:30	50명
선우성혜	동의대 사학과	일제강점기 동래 지역 조선인 경제인의 사회 경제활동	11. 3.(수)	19:00~20:30	50명
신정윤	부산대 사학과	일제 말 부산 부랑아의 강제동원	11. 10.(수)	19:00~20:30	50명
서만일	동아대 사학과	한국전쟁과 부산항	11. 17.(수)	19:00~20:30	50명
박경연	부산대 사학과	부산 천주교의 구호사업	11. 24.(수)	19:00~20:30	50명

- **대상** : 일반 시민 • **신청 기간** : 정원 마감 시까지 • **장소** : 역사관 6층 멀티미디어실
- **참여 방법** : 역사관 홈페이지 (문의 전화 : 051-629-8600, 8616)

※ 코로나19 확산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역사관 캐릭터 '포모'와 함께 강제동원이 무엇인지 알아봐요

어린이 인형극, 어린이 체험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역사관 시설 무료 대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관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일부 시설을 무료로 빌려 드립니다.

· **1층** : 울림의 방 / **5층** :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6층 : 휴게실
· 문의 : 051) 629-8600

자원봉사자 모집

함께 만들어 갈 역사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 : 1365 자원봉사자포털
https://www.1365.go.kr/
· 문의 : 051) 629-8600, 8621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FoMo나 역사관에 바라는 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동봉된 엽서, 이메일(museum@fomo.or.kr),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기부 팔찌)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억이 역사관의 기록이 됩니다.

기억과 기록

땅에 묻지 마세요, 태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물건'이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대상** :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 해방 후 조선인 전범 관련 사진, 문서, 의류, 도서 등
- **문 의 처** : ☎ 051) 629-8615

잊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언대상** :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 **증언방법** :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인터뷰
- **문 의 처** : ☎ 02) 721-1825

※ 피해 생존자와 유족분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8532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320번길 100(대연동 산 204-1)
Tel. 051 629 8600 **Fax.** 051 629 8619 **홈페이지** http://museum.fomo.or.kr